

# 데뷔골 광주FC 정호연 “자신감 얻었어요”

서울E전 추격골로 득점 신고  
주장 안영규 칭찬 동기부여  
22경기 1골 2도움 10슈팅

“데뷔골을 기록해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광주의 승격만 바라보고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광주FC 미드필더 정호연(22)이 프로 데뷔골을 터트린 뒤 자신감을 챙겼다.

정호연은 지난 11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2 26라운드 서울 이랜드와의 원정경기에서 중앙미드필더로 출전해 득점을 기록했다. 이날 광주는 전반전만 2골을 내주며 0-2로 끌려갔으나 후반 7분 정호연이 헤이스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 슈팅으로 만회골을 터트렸다. 22번째 경기에서 기록한 K리그 데뷔골이었다.

정호연은 2월 19일 김포전에서 데뷔, 5월 7일 서울이랜드전에서 첫 도움을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경남전에서 두 번째 공격포인트를 올린 뒤 22번째 경기였던 서울E전에서 첫 골을 터트렸다.

정호연은 “팀이 0-2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골을 넣었다. 지금 생각하면 데뷔골이어서 자신감도 가지게 됐지만 당시는 팀이 지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빨리 따라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골을 넣었던 상황에 대해 정호연은 “선수들끼리 공이 잘 연결됐다. 오른쪽에 있었는데 헤이스가 측면으로 공을 보냈다. 공을 잡으려고 할 때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좋은 결과가 따라왔다”고 밝혔다.

정호연은 올해 신인이다. 180cm 73kg의 다부진 체격으로 빠른 몸놀림을 자랑하는 정호연은 넓은 활동 반경과 볼 간수 능력이 강점이다. 특히 날카로운 패

스와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이며 금호고 시절인 지난 2016년과 2017년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축구대회 2연패, 2018년 제73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우승을 이끌었다.

2018년 제73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우승 당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고 단국대 시절인 2019년 제55회 태백기 전국 추계대학연맹전 준우승, 제15회 KBS N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준우승을 견인했다. 2021 U리그 5권역 우승도 경험했다.

올해 신인으로 프로 무대를 밟은 그는 22경기에 나서 1골 2도움 10슈팅을 기록 중이다.

정호연은 “감독님께서 경기 전 ‘항상 강하게 압박하라. 수비가 먼저다’고 주문하시어서 이행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데뷔골을 넣던 날 경기 끝나고 동료들과 감독님께 축하를 많이 받았다. 더 욕심이 났다”고 말했다.

올 시즌 목표에 대해서는 “개인 기록을 세우는 것보다는 우승해서 팀이 1부리그로 승

격했으면 좋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호연은 시즌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주장 안영규로부터 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로 언급되기도 했다.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직도 그 정도 타이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기부여 삼아 열심히 할 것”이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정호연은 팀 훈련 외에도 개인 훈련까지 성실히 임하고 있다.

그는 “피지컬적인 부분과 체력을 더 키우고자 웨이트트레이닝을 꾸준히 하고 있다. 자체훈련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중이다”며 “지금 몸 상태는 90% 정도다. 언제든 경기에 뭘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고 싶다. 팀에서는 전술훈련과 미팅을 통해 리그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감사하다. 좋은 성적과 광주만의 경기력으로 보답을 하고 싶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바랐다. /조혜원 기자



정호연



격렬한 볼다툼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2 아시아컵 조별리그 D조 경기에서 인도 임리트팔 싱(오른쪽)이 뉴질랜드 맥스달링과 볼다툼을 벌이고 있다. 뉴질랜드가 100-47로 이겼다. /AP=연합뉴스

## 조민재 아시아주니어역도선수권 출전

〈전남체고〉

15~25일 우즈베크 타슈켄트

61kg급 신록과 금메달 경쟁

전남체고 조민재(3년)가 15일부터 2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2022년 아시아주니어·유소년역도선수권 대회에 출전한다.

대한역도연맹은 13일 아시아주니어·유소년역도선수권에 출전할 15명의 선수 명단을 공개했다.

만 20세 이하 선수가 출전하는 주니어 대회에는 12명(남자 8명, 여자 4명), 17세 이하 선수가 출전하는 유소년대회에는 남자 선수만 4명이 참가한다.

조민재는 지난 5월 그리스에서 열린 2022 세계역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인상 111kg, 용상 145kg, 합계 256kg을 기록, 용

상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당시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 아쉬워했던 조민재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조민재 외에 ‘포스트 장미란’ 박혜정(안산공고)과 ‘라이징 스타’ 신록(고양시청)도 출전한다.

박혜정은 세계역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며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당시 박혜정은 인상 120kg, 용상 161kg, 합계 281kg을 들어 3개 부문 모두 1위에 올랐다. 자신의 합계 최고인 290kg보다 9kg을 덜 들었지만, 경쟁자는 없었다.

이미 세계주니어 무대를 평정한 박혜정은 아시아주니어선수권에서도 압도적인 우승을 노린다.

남자부에서는 61kg급 신록이 우승에 도전한다. /최진화 기자



조민재

신록은 지난해 12월 타슈켄트에서 열린 2021 세계역도선수권남자61kg급 경기에서 인상 132kg, 용상 156kg, 합계 288kg을 들어 3개 부문 모두 1위에 올랐다.

당시 중국, 북한 등 역도 강국이 출전하지 않아 경쟁자가 줄긴 했지만, 신록이 시니어 세계무대에서 정상에 오른 건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5월 세계주니어선수권에는 출전하지 못한 신록은 아시아주니어선수권 우승으로 아쉬움을 털어낸다는 계획이다. /최진화 기자

## 광주FC ‘공수겸장’ 신예 양창훈 영입

중앙대 거쳐 K4리그서 활약

광주FC가 13일 K4리그 서울중앙축구단에서 활약한 공격수 양창훈(23)을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

186cm·82kg의 양창훈은 빠른 스피드와 날카로운 왼발킥, 침착한 마무리가 장점인 최전방 공격수다. 다재다능함으로 좌우 측면 공격은 물론, 미드필더와 수비수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다.

한양공고를 거쳐 2018년 중앙대학교에 진학한 양창훈은 1학년부터 2018년 제14회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2018 U리그 4권역 우승(6골)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후 2019년 제55회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과 2019 U리그 1권역 준우승(12골) 등 각종 대회에서 맹활약했다. 올해는 K4리그 서울중앙축구단에 입단해 프로 무대를 향한 여정을 마쳤다.

최전방 공격에서 미드필더수비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 플레이어 양창훈은 이정호 감독 전술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호 감독은 “스피드가 있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다. 왼쪽 센터백, 윙백, 양쪽 윙어 공격과 수비, 어느 포지션에 뒀도 두각을



양창훈

나타낼 수 있다. 한 선수다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으면 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결정했다”고 영입 배경을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양창훈의 패기와 질

실함이 돋보였다. 광주의 축구에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이다. 득점력과 헤딩력도 상당히 좋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다”고 말했다.

양창훈은 현재 광주FC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이 감독은 “100% 경기력을 보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K리그4와 다른 점은 스피드일 것이다. 8월에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창훈은 “꿈에 그리던 프로 무대를 끈끈함과 투혼이 장점인 광주에서 시작하게 돼 기쁘고 설렌다”며 “신인다운 마음가짐으로 묵묵히 헌신하고,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



제8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대회에 참가해 수상한 광주대학교 선수들과 강경도 감독은 왼쪽 첫 번째 모습. /광주대 제공

## 광주대 고영훈 태권도원배 금빛 발차기

박성빈·김유정 ‘은’

김유민·조하은 ‘동’

광주대학교가 제8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금메달의 주인공은 고영훈(2년)이다.

고영훈은 전북 무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대회 남자부 -87kg급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남자부 -68kg급 박성빈(2년)과 여자부 -57kg급 김유정(3년)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여자

부 -53kg급 김유민(1년), 여자부 -67kg급 조하은(3년)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강경도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국대회에서도 훌륭한 경기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파워태권도 대회를 비롯해 남은 모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거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대는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에서 금2·은3·동2개를 획득했으며, 이어진 전국태권도대회에서는 단체와 개인전 금메달을 휩쓸며 남녀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최진화 기자

## KBO 해외 출신 신인드래프트 신청 접수

내달 29일 트라이아웃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해외 출신 및 고교·대학 중퇴 선수를 대상으로 2023 신인드래프트 참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한국에서 고교 이상을 재학하

고 국내 프로구단 소속 선수로 등록된 사실 없이 외국 프로 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한 선수 ▲국내 프로야구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해외학교 출신) 선수 ▲고교 또는 대학 선수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이후 재적 학교를 중퇴한 선수 ▲고교이상 대한야구소프트볼협

회에 등록된 이력이 없는 선수 또는 KBO 신인 지명 대상이 아니었던 선수 중 독립리그 팀 소속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1경기 이상 출장한 선수다.

국내 고교를 재학한 뒤 외국 프로구단과 계약을 체결했던 선수는 2021년 1월 31일 이전에 기존 구단과 계약이 종료됐어야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

KBO는 서류 검토 다음달 29일 트라이아웃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